

■ 인터뷰 – 아름다운가정상 받은 용호2동 정철운·송유선씨 부부

## “여덟 아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8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철운·송유선씨(용호2동) 가정이 지난 5일 열린 2012 남구여성대회에서 아름다운가정상을 받았다.

정씨 부부는 5남4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양육과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과 선천성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혼신적으로 돌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어머니 송유선(42)씨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8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쉴 틈 없이 하루를 움직인다. 아침 등교시간은 이들 부부가 가장 바쁜 시간.

한참 잡아 많은 아이들을 깨우고 씻기며 아침밥까지 챙겨 먹이다 보면 정작 자신들의 끼니는 거르기 일쑤다.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 정철운(47)씨가 출근하고 나면 송유선씨는 더욱 분주하다. 하루만 걸려도 대산같이 쌓이는 빨래거리를 세탁기에 넣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오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흐른다. 잔병치료를 많이 하는 첫째·일곱째가 병원에 가는 날 이면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진다.



용호2동 정철운·송유선 씨 부부가 지난 5일 열린 남구 여성대회에서 8명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상을 받고 있다.

### 자녀양육 힘들어도 사랑과 배려로 극복

### 10명 식구 생활 가능한 내집 마련이 꿈

다. 이런 날이 태반이다 보니 유선 씨의 건강도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며 웃웃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

이런 아내를 바라보는 정철운씨의

마음은 편치 않다. “여덟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아무리 가사 일을 둡는다고 해도 아내의 수고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맴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정씨 부부는 하루의 고단함을 아들의 미소를 보며 달래고 있다고 얘기한다.

“8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을 때가 있지만 아이들의 풀망풀망한 눈과 베면 불자리 미소를 보고나면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를 부부가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종교적 영향이 크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두 부부는 8명의 자녀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주저 없이 얘기한다.

“전사의 미소를 닮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며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소 힘들 때도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어렵겠습니까.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정씨 부부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 날로 크는 아이들을 위해 큰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현재 15평 남짓한 다가구 주택에서 10명의 식구가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지만 저만이 아니다. 두 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빼놓지 않고 방3칸짜리 집으로 옮겨 아이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김옥련 기자

## 신속한 민원처리가 곧 친절

### 도록 도 친절지기 옹호2동 김소연씨



“말로써 친절이 아닌 일로써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아무리 당찬 인상의 새내기공무원 김소연(29)씨의 친절마인드다. 소연씨는 2010년 10월 공무원 생활의 첫부임으로 용호2동 주민센터 지방행정서기보 발령을 받았다.

소연씨는 이곳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제증명 및 말소 업무를 맡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웃음을으로 대하고 직장동료 간에는 먼저 인사를 하며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주위 동료로부터 친절평가 카드를 보내온 임금복(용호2동)씨는 가족증명서를 발급 받고 팩스를 보내야 할 다급한 상황의 민원인을 이해하며 도와준 소연씨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적었다.

또 인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이 안정된 직장이라는 매력도 있지만 상시들의 훌륭한 인품 아래 배울 점이 많다며 만족하고 있다.

중국어가 가능한 까닭에 귀화한 중국인들의 민원을 쉽게 처리한 적도 많다.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가장 고충스럽다고. 간혹 때를 쓰는 민원인들을 수긍해 만드느라 힘든 적도 있으나 중매를 서겠다는 제의도 가끔 들어 한바탕 웃는다고 한다.

“작은 친절에 고맙다는 칭찬이 힘이고 보람입니다”라는 그녀는 요즘 탁구에 취미를 붙여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다. 앞으로 전공을 살려 국제 협력 업무를 맡아 더 큰 봉사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권혁신 동장은 “소연씨는 신규 직원임에도 언제나 앞장서 일하는 노력파다”라고 칭찬했으며 동료 정현정(42)씨도 “다정하고 상냥하여 직장 분위기 메이커”라고 주께 세웠다.

김정화 기자

### 끊임없는 연차 업무능력 키워 선한 인상 밝은 웃음 칭찬자자

활행희씨 역시 자주 방문하여 소연씨에게 서류를 부탁하는데, 그때마다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다는 카드를 보내왔다.

부산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소연씨의 전직 직업은 은행원이었다. 은행의 반복 업무가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평소 동경한 공무원으로서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소연씨는 공무원

### 우리구이 사람

## 지역사회 환원 사업 적극 추진

### 문현3동 새마을금고

### 방이혁 이사장

50년 가까이 전통시장에서 단추를 팔아온 시장 상인이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회계의 주인공은 지난달 문현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방이혁(문현3동 65)씨.

김해 출신인 그는 18세 되던 해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끊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 첫 직장은 국제시장 의류부자재 가게였다. 약관의 그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오래 되지 않아 자신의 가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특유의 뜨겁고 성실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부산진시장으로 가게를 옮기고 이웃을 위한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33년 통장을 시작으로 23년간 봉사했으며 새마을금고 이사



와 감사로 활동했다. 자신의 일터인 부산진시장에서도 시장번영회 분과 위원회 일원으로 일하며 안목을 넓혔다. 그러면 중 수십년간 인연을 맺어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해 당당히 선출됐다. 2남2녀의 자녀들도 별 탈 없이 잘 자랐다. 큰 아들 내외는 의사부부로 재직하고 있으며 막내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다.

방 이사장은 “부산진시장 상인 출신 중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고동안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환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2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

옥조근정총장	옥조근정총장	근정포장	근정포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이인수	최영호	송혜련	이용우	배영태
체육청소년담당	의회 전문위원	가족보건담당	주무관	주무관

과 민원봉사와 혁적답당,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0년 남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고 각종 조례와 의안 등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송혜련 가족보건담당은 81년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2000년 지방간호주사로 승진했으며 2006년부터 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으로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 등 지역 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서에 근무하며 광복으로서 역할을 다졌다.

최영호 전문위원은 77년부터 공직에 몸담아 오며 대연4동 시무장

으로 임용,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경제와 도시관리와 재직시에 주민 휴식공원 관리사업과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높였다.

배영태 주무관은 88년 지방운전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 주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을 참여해 적극 유도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인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와 함께 운전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용우 주무관은 89년 지방사무

**■ 사람과 사람**

**제35대 남부경찰서장 취임**

박화병 전 을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지난 3일 남부경찰서 직무교육장에서 제35대 남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박 서장은 주민 중심의 친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표창 수여**

한용숙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 날부지회장을 지난달 27일 국가보훈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은해 응호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이 최근 열린 제22회 전국재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풍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 시의회 상임위원장에 선출

### 김선길 시의원 운영위원장

### 이산하 시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선길 시의원 이산하 시의원

생활과 직결된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됐으며 송순임 시의원과 김팀이 시의원은 각각 행정문화위원회와 기재제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남구지역발전과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한 의견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김선길 위원장은 “부산시의회가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섬기고 나아가 부산시정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부산도시공사 등 소관 부서 관련 업무를 감시하고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산하 시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개발·재건축, 교통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본 시의원은 시민의 실

## 화상 치료비 3천만원 전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이형진 부산지역본부장



“화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어린이의 떡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온정이 있었기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형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지난 3일 이종철 구청장을 만나 화상을 입은 김보연(용호2동 6) 어린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써달라고 3천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5월 4일 SBS 희망TV 23회에 김보연 어린이의 사연이 방영되면서 담당한 시민들의 후원금 중 일부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부구화명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방송 촬영을 하면 중 우연히 김보연양의 사연을 접하고 어린이재단과 SBS TV와 공동제작을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대연동에 있는 남구동행푸드마켓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도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한 물음에 그는 “지난 48년 설립된 기독교아동복지회 재단의 전신으로 6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돋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며 “지난 화재로 부산의 시·군에 모두 25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남구지역에도 1억 1,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후원물품 14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 재원은 시민 1만여명이 보내온 성·금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무원들이 재단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동행푸드마켓에 후원물품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시민들의 성·금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 505-3117

“지난 화재동안 부산의 시·군에 모두 25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남구지역에도 1억 1,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후원물품 14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 재원은 시민 1만여명이 보내온 성·금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무원들이 재단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동행푸드마켓에 후원물품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시민들의 성·금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화재동안 부산의 시·군에 모두 25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남구지역에도 1억 1,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후원물품 14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 재원은 시민 1만여명이 보내온 성·금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무원들이 재단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동행푸드마켓에 후원물품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시민들의 성·금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화재동안 부산의 시·군에 모두 25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남구지역에도 1억 1,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후원물품 14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 재원은 시민 1만여명이 보내온 성·금품으로 충당되고 있다.